

이슈브리프 846호
(2026. 5.22)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 평가와 시사점

제846호

김보미 bomi@inss.re.kr



국문초록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이번 방한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이루어진 첫 남측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사례는 남북 화해의 신호탄이라기보다, 국제 스포츠 무대를 매개로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 방식으로 제한적 접촉을 가진 현실적 단면을 보여준다. 북한은 국제 스포츠 규범에 따라 방한하여 체제 정상성과 경기력을 과시하면서도, 민족 공동체 담론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두 국가론' 기초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방한 당일의 최전선 군사 행보와 노동신문의 사실 위주 단신 보도를 통해 스포츠 교류와 대남·군사 노선을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대회를 정치적 계기로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국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며 순수 국제 이벤트로 안정 관리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였다. 향후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과 국제기구 매개의 제한적 교류가 병존하는 복합적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대북 대응은 변화된 현실상황을 반영하여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실무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적대적 두 국가, 남북관계, 평화공존

5월 17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CWL)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 북한 여성 축구단(“내고향여자축구단”) 35명의 일정이 어느덧 대회 막바지에 다다랐다. 북한 선수단의 방한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개최된 국제탁구 연맹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에 남북 혼합복식 경기에 참여한 이후 약 7년 반만이다. 축구 종목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며, 여자 축구 클럽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았다. 특히나 이번 방한은 북한이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처음 이루어진 남측 방문이라는 점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비록 ACWL은 아시아축구연맹에서 주관하는 클럽 대항전이지만, 북한팀이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 4강전과 결승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절됐던 남북접촉이 제한적으로나마 재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이번 방한이 최근 북한의 대남 기조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또 향후 남북 교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논한다.

북한팀 대회 참가의 의미

북한은 전통적인 여성 축구 강국이다. 월드컵 출전은 4회에 불과하나, FIFA 랭킹은 11위로 상위권이며 연령별 및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꾸준히 성과를 내왔다. 2007년 FIFA 월드컵에서는 8강 진출을 이뤄냈으며, 2025년 모로코에서 개최된 U-17 여자 월드컵에서는 통산 네번째이자 최다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북한에 있어 여자 축구 경기는 국제사회에서 체제의 성과와 국가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의 국위선양 기능은 과거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지만, 사회주의

및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중요한 수단이다. 김정은 정권 역시 ‘체육 강국 건설’을 강조해 왔으며 2012년 11월 4일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 엘리트 선수 양성을 주도하고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대외적으로 체제 선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대내 결속을 도모해 왔다. 북한 여자 축구단의 이번 참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여자 축구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 선수단이 국제대회 상금 수령이 대북제재 위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해당 경기는 AFC 주관 대회이며, 상금 지급 및 운영 역시 국제 스포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4강 및 결승전 개최지가 제3국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포츠 교류 자체를 제재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제한적 참여를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론 기조의 현실적 반영

경기를 앞두고 혹시나 이번 방한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북한 여성축구단의 리유일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실제 체류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선수단의 태도 역시 북한 당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두 국가론’ 기조를 상당히 충실히 반영하는 모습이었다. 북한 선수단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정책에 따라 남과 북이 별개의 국가라는 점을 확실히 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기존대로 남한 방문증명서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북한 여권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공식 보도 태도 역시 앞서 나타난 ‘두 국가론’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북한은 수원FC 위민과의 준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노동신문 3면에 경기 결과를 단신 형태로 보도하였다. 경기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신문에 언급되었지만 선수단 방한의 정치적 의미나 남북 공동 응원단 참석 등 남북관계를 부각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기 결과와 선수들의 경기력, 팀의 선전 등 비교적 사실 전달 수준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북한이 이번 대회 참가를 어디까지나 국제 스포츠 경기 참가의 범주 안에서 관리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북 간 민족적 연대나 화해 분위기로 해석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선수단이 방한한 5월 17일 당일의 군사적 행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북한은 전군 사·여단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김정은은 남북국경 최전선 부대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스포츠 교류와 대외적·군사적 입장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사상 첫 여자 축구 클럽팀 방한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남북 화해의 기대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즉, 체육 대항전 참가는 국제 대회의 일환일 뿐이며, 남북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임을 대내외에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 행사와 정치적 함의

과거 1970년대 미·중 관계 개선 과정에서 이른바 ‘핑퐁외교’가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번 북한 여자축구단의 방한이 곧

바로 남북관계의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이다. 이는 냉랭한 북한의 대남 기조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진전은 불가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도 보인다. 무엇보다 구조적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스포츠 교류 하나만으로 실질적 외교 관계의 변화나 협력 국면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단순한 교류 중단 수준을 넘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한 상황이며,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있다. 물리적으로도 북한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북핵 고도화와 미중관계, 러우전쟁, 중동 문제 등 복잡한 대외정세의 제약 역시 지속되고 있어, 이번 행사 역시 일회성 이벤트 차원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한과의 정치적 접촉면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행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관련 서한을 통해 AWCL 4강전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된 순수 국제 스포츠 행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준결승을 앞두고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연결짓기보다는 순수하게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관리하려는 신중한 접근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한이 정치적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소비되거나 남북관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례는 북한이 추구하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수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국제

스포츠 규정에 따라 한국을 방문해 경기를 치렀고, 뛰어난 경기력을 통해 북한 체제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북한은 이번 방한 과정에서 남북 화해나 민족 공동체 담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남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 국제경기에서 마주하는 별개의 국가로 대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우리의 대응과 향후 전망

결국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은 변화된 구조 속에서 남과 북이 국제 스포츠 무대를 매개로 ‘국가 대 국가’의 형태로 제한적으로 접촉한 사례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로선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거나, 과거 남북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시기에 추진되었던 남북 공동팀 구성이나 대규모 체육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는 향후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북한이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기보다는, 변화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접촉 방식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이 민족의 개념을 희석하고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북 인식과 정책 역시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하게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5월 18일 발간된 『통일백서』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응하여,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적대성을 지우고 현실적인 긴장 관리와 평화 공존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적용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당분간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과 제한적 교류가 병존하는 복합적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의도와 전략적 메시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되, 국제 스포츠와 문화 교류 등 비정치적 접촉의 공간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일회성 화해 분위기나 상징적 이벤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북한이 국제 규범을 내세워 제한적 접촉 공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변화한 남북관계 현실에 부합하는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